



2024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연변 집중전시 및 피서관광 시즌 가동



▲ 연변의 32 가지 무형문화유산이 집중전시된 연길시 아리랑광장

6월 8일, 2024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연변 집중전시 및 피서관광 시즌이 연길시 아리랑광장에서 정식 가동되었다.

길림성문화관광청 부청장이며 길림성박물관 국장인 장건평,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정부 부주장 윤조휘가 활동에 참석해 2024년 연변 피서관광 시즌의 정식 가동을 알렸다.

장건평이 가동식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년래 연변은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특색이 뚜렷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민역군 관광산업을 다그쳐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연변이 문화강성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 전승과 창조 혁신의 두가지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유산 보호 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전승 환경을 최적화하며 문화유산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란다. 관광강성, 빙설강성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 숙박, 여행, 쇼핑, 오락’의 전체 산업사슬을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 문화관광’ 문장을 작성해 잘함보다 더 좋아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더 좋으며 더욱 매력적인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제품을 기여해야 한다. 전국 나아가 전세계의 친구들이 길림에 오고 연변에 와서 문화의 아름다움, 경치의 아름다움, 인문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윤조휘가 가동식에서 환영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변은 ‘문화로 관광을 구축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드러내며’ 관광강주를 건설하는 발전 배경하에 문물의 보호 리용과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여 문화자원 우세를 문화 발전 우세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므로 문화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다그치고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광으로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와 융화를 촉진해야 한다. 전국 관광발전대회 정신, 특히는 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깊이있게 관철하여 피서레저, 빙설관광을 연변 천역군 관광산업의 ‘이중구조’로 삼고 수정혁신, 품질 제고, 효익 증가, 융합 발전을 추진하여 연변의 문화관광산업의 승격을 다그치고 문화관광산업의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며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가동식에서는 2024년 연변 피서관광 시즌 정품 로고를 발표했다. 이 밖에 행사 당일 연변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무형문화유산 항목 전시공연, 전통 공예품 무형문화유산 항목 전시

및 판매, 단오절 민속 체험 행사,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민족 단결 한가족’ 주제 사진촬영작품전, 각 현(시) 문화관광기업 홍보 전시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홍보 전시와 체험 활동을 통해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문화관광의 향연을 선사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관광으로 ‘3교’(三交)를 촉진, 다 함께 동심원 그리자”를 주제로 하여 새시대 문화유산 보호와 리용의 새로운 성과를 선전 전시하고 관광으로 ‘3교’를 촉진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함과 아울러 중화문화의 동질감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식을 굳히도록 여러 민족 대중들을 인도하며 여름철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 안상근 김파 김영하 김가혜 기자

중국 교육강국지수 세계 21 위

최근, 중국교육과학연구원이 발표한 새로운 한차례 교육강국지수 측산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에 비해 중국의 전세계 순위가 2단계 상승한 21 위로 2012년 이래 진보가 가장 빠른 국가로 되었다.

“지수의 변화를 통해 우리 나라 교육사업 개혁 발전 정황을 분석할 수 있고 교육강국 발전 동태와 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료해할 수 있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교육통계분석연구소 소장 마효강은 “교육 발전은 느린 변량인 동시에 뚜렷 변량이다. 1년 동안 우리 나라 교육강국지수 상승은 주로 우세지표 유지, 단점지표 상승, 혁신지표 돌파로 표현되었다.”라고 밝혔다.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초석은 기초교육에 있다. 최근년간 기초교육 량질, 균형 발전으로부터 교육 디지털화 전환, 과학교육 대대적 발전, 중소학교 교원 학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는 기초교육의 착실한 추진에 조력했다. 교육강국지수 측산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초교육 품질은 보다 많은 국제 인정을 받았고 국제학생평가항목(PISA) 측정에서 여러번 좋은 표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의무

교육 품질 모니터링에서도 열독, 수학 등 학과 합격률이 PISA 테스트에서 반영한 OECD 국가 평균 표준도달률과 기본적으로 비슷했고 전반적으로 앞 순위 15개 국가의 수준에 도달했다. 동시에 고중단계 순 입학률이 안정 속에서 상승, 2023년에 91.8%에 도달했다.

교육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고등교육이 선두적 역할을 한다. “2022년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진보가 가장 뚜렷한 것은 고등교육 보급과 학교 운영 수준 지표이다.”

마효강은 2023년 우리 나라 고등교육 순 입학률은 60.2%에 도달하여 앞 순위 15개 국가의 평균 수준(86.9% 이상)보다 차이가 한층 더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학교 순위에서 TOP 200에 든 우리 나라의 대학교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외 우리 나라 고등교육 졸업생 가운데서 STEM(과학, 기술, 공정보고 수학, 국내에서는 주로 리공과) 학과 비중이 세계 선두를 차지해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질생산력 육성과 발전을 위해 튼튼한 인적 토대를 다졌다.

/ 인민넷 - 조문판

국가이민관리국 : 단오 런후 572.2 만명 출입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단오 런후 기간에 전국 변경검사기관은 도합 575.2만명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을 보장했는데 하루 평균 191.7만명으로 지난해 단오 런후에 비해 45.1% 성장했다. 하루 출입국 통관 최고봉은 6월 8일에 출현, 197.6만명에 달했다. 그중 내지 주민 출입국자는 246.6만명에 달하여 동기 대비 25.4% 성장했으며 향향, 오문, 대만 주민은 277.9만명에 달해 동기 대비 66.1% 성장했다. 외국인은 50.7만명으로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 출입경 교통운수수단 23.8만대(척, 열, 대)를 검사, 이는 동기 대비 35.2% 성장한 셈이다.

국가이민관리국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전국 변경검사기관은 ‘2개 공포, 1개 일람’ 요구를 엄격히 리행하고 통상국의 출입국 승객 흐름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발표하여 광범한 출입국인들이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하도록 했다. 과학적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검사통로를 충분히 열며 중국 공민의 통관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했다.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우 및 강대류 날씨가 출입경 통관에 미치는 영향에 안정적으로 대응했으며 순간적인 승객 흐름 고봉기를 제때에 완화했다. 단오 런후, 전국의 통상구 통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원활했다.

/ 인민넷

연길공항, 단오 런후 연인수로 1만 4,754명 운송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연길공항은 운수 리차륙 비행기 106대를 보장하고 려객 물동량은 연인수로 1만 4,754명, 화물우편 물동량은 약 21.7톤으로 2023년 단오 런후(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비 각각 2.9%, 6.7%, 35.5% 증가했으며 2019년 단오 런후의 92.2%, 99.9%, 71.0% 수준으로 각각 회복되었다.

런후 기간 집행 항로는 15개로 그

중 국내선은 연길-북경 대동, 연길-북경 수도, 연길-장춘-광주, 연길-대련-심수, 연길-청도, 연길-청도-항주, 연길-상해 포동, 연길-유방-장사, 연길-연대-상해 포동, 연길-정주-성도 천부 등 10개, 국제선은 연길-서울, 연길-부산, 연길-청주, 연길-무안, 연길-울라지보스토크 등 5개였다.

/ 유경봉기자

김치, 연변사람들 식탁의 ‘일년대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여름에 장을 담그고 겨울에 김치를 담그는 것은 백성들 가정의 ‘일년대계’라고 기재되었는데 이와 같은 김치를 담그는 습속이 우리 나

라 조선족 농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김치는 조선족이 한해 동안 꼭 먹는 반찬일 뿐만 아니라 이미 모두가 좋아하는 민속음식으로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선족 인민들은 다른 민족의 음식 장점을 계속 섭취하면서 전통적인 김치 식습관을 보존하는 동시에 중국 특색이 있는 조선족 김치문화를 창조했다. 2014년 11월, 연길시에서 신청한 ‘조선족 김치 제작기술’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제4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성 항목 명단’에 올랐으며 김승철이 이 항목의 연길시 전승인으로 되었다.

김승철은 김치는 종류가 다양하고 주요 재료와 보조 재료가 다름

에 따라 김치의 이름과 맛도 다르다고 하면서 주로 배추김치, 열매김치, 갓김치, 깍두기, 마늘장아찌, 파김치가 있다고 했다. 배추김치를 만들려면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깨끗이 씻은 배추를 24시간 초절임한 다음 고추가루, 소금,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에 무우, 사과배를 넣어 달고 상큼한 맛을 더해준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묻힌 다음 읊에서 발효시킨 후 사람들의 식탁에 올린다.

복잡한 제작 과정은 생활에 대한 연변사람들의 열애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때문에 김치는 연변사람들의 식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맛이 풍부할뿐더러 식욕을 자극할 수 있고 느끼함

을 잡아줄 수 있어 식탁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연변사람들의 식탁에 오르 김치는 수십가지에 달하는데 근당 가격이 몇원 내지 몇십원이며 전국 각지로 배송된다. 김치는 직접 먹거나 볶거나 찜을 싸거나 비비거나 굽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먹든 꼭 한가지 방법은 식객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다. 연변에서 김치 산업은 이미 규모화되었고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브랜드와 가공제작 공예가 있는바 금강산, 한식부 등의 김치제품은 연변에서 널리 알려져있는데 국내외 시장 판로도 개척했다.

/ 인민넷 - 조문판

가요 마음의 소나무



작사: 한태익 노래: 박연
작곡: 김철수 영상: 최어금

